

선진국의 고용전략 추이와 시사점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전 세계가 고유가와 물가상승의 압력 등 비우호적인 경제환경에 휩싸여 홍역을 치르고 있는 지금 실물시장의 침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이미 다가온 듯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연간 30만 명 수준을 넘어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경우 노동시장에서는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나타나는 부작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용 증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악영향은 한계실업자,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면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세계 경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고용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선진국의 고용전략은 고용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과 함께 경제성장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성장에서 돌아오는 분배의 혜택이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강조하곤 했다. 그러나 효과적인 고용전략은 변화하는 각국의 경제적 상황으로부터 문화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6월 3~4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국제고용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Gerhard Bosch 교수는 각 국가의 고용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세계화, FTA와 같은 시장개방, 법제도의 변화, 이데올로기, 기술 및 소비패턴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 많은 외부 및 내부 변수들을 살펴보고, 유럽의 각 국가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고용모델을 채택하여 정책을 펴 나간 결과 노동시장의 성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 고용모델들은 변화하는 도전 과제에 따라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국가고용모델이라고 해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모든 고용전략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고용창출에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지적되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모델의 경우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의 증가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동반되어 긍정적인 융합효과를 가져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선진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환경의 악화와 함께 일자리 증가의 성과가 낮아지는 한편, 높은 세율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과 정부 재정지출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고용모델들의 성과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구조나, 노동시장의 구조에 따라 그 성과가 달리 나타난다. 이러한 예로 국제고용포럼에서 OECD의 Paul Swaim 박사는 세계화가 해당 국가에 소득과 복지수준의 상승 기회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취약 부문에 속한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화로 발생하는 조정에 대한 보완적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또한 이러한 피해는 주로 취약계층, 취약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정책의 초점은 주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노동시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Günther Schmid 교수는 동독과의 통일 이후 많은 문제를 겪은 독일 노동시장에 대한 꾸준한 개혁과 고용전략의 수정이 실증적으로 개선된 고용성과를 가져온 것을 설명하면서, 노동시장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의 양적·질적인 향상을 위한 별도의 고용정책이 경제성장과 동반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선진국의 고용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주어진 경제환경 또는 환경적·제도적 변화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의 대응이 효과가 있었는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효과적인 고용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고용전략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외부적 요인의 실체와 그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한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시했던 높은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의 증가는 계속 발생하는 대외경제 환경의 악재로 인해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가 하락하는 주기로 빠지는 경기순환의 사이클에서 노동시장의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시장과 산업에 대한 미시정책들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일은 노동시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지금 추진되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된다. **KL**